

中國古代의 曆에서는 造曆의 해보다 훨씬 上古의 해를 잡는데, 그중 元嘉曆은 上元庚辰年の正月朔은 甲子日이고 朔은 이날 午前 0時이며, 正月中氣인 雨水의日時도 이날의 같은時刻 0時라는 뜻이다. 上元으로부터의 年數는 積年이라고 하는데 元嘉 20년까지의 積年이 5703年이다.

元嘉曆에서는 또 平氣法을 썼다. 平氣法이란 1太陽年の 길이를 24等分하여 入氣日時를 정하는 方法이다. 이 曆法에서 1太陽年과 1朔望月の 길이는 다음과 같다.

$$1\text{太陽年} = \frac{\text{紀日}}{\text{紀法}} = \frac{222070}{608} = 365.24671(\text{日})$$

$$1\text{朔望月} = \frac{\text{通數}}{\text{日法}} = \frac{22207}{752} = 29.530585(\text{日})$$

위의 뜻은 608太陽年이 222070日에 해당하고 752朔望月이 22207日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19年 7閏法은 이것에서 바로 유도된다.

武寧王陵誌石文「癸卯年 5月丙戌朔」이 元嘉曆法에 맞는가를 알아 보자. 이해는 西紀 523年이므로 積年은 5783年이 된다. 이것에서 元法 3648을 減하고 간단한 계산으로 朔望月數를 求한다.

$$(5783 - 3648) \times \frac{235}{19} = 26406.578(\text{月})$$

이 26406朔望月의 日數는

$$26406 \times \frac{22207}{7520} = 779784.6303(\text{日})$$

이 해의 正月朔의 日辰은 Gauss의 기호를 쓰면

$$\left\{ \frac{779784.6303}{60} \right\}_R = 24.63$$

이에 24는 干支番號인데, 이 해의 正月朔의 日辰이 戊子라는 뜻이고, 0.63은 朔의 時刻을 알려 준다. 앞에서 元法 3648(年)을 減한 이유는 日辰計算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積年의 年數를 줄인 것이다. 積年에서 元法の 整數倍를 減하여도 구하고자 하는 日辰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元法の 日數가 60의 整數倍로 되기 때문이다. 즉

$$\text{元法} \times \frac{\text{紀日}}{\text{紀法}} = 3648 \times \frac{222070}{608} = 60 \times 22207$$

이 曆法은 平朔法과 平氣法을 썼으므로 이제 正月을 第1月로 하고, 第6月까지의 朔과 中氣를 구하면 다음 표와 같다. (中氣日時는 별도로

설명하겠음.)

朔과 中氣 月別	朔의 日時	中氣의 日時
제 1월 (正月)	24.6303	42.7270
제 2월	54.1609	12.1642
제 3월	23.6396	42.6014
제 4월	53.1702	13.0383
제 5월	22.7008	43.4758
제 6월	52.2314	13.9130

단, 이에 日時의 整數部가 日辰의 干支番號를 나타낸다. 이 표로 보아 제 6월까지는 中氣가 없는 달은 없으므로 閏月은 없다. 5月朔의 日辰의 干支番號 22는 丙戌에 해당하여 誌石銘文과 일치한다.

이런 方法으로 컴퓨터를 써서 百濟時代의 全體曆日과 入氣日을 모두 계산하였던 바 誌石銘文의 曆日과 잘 一致되었다.

漢文資料의 電算化에 대한 基礎研究

啓明大 金基協

학술연구에 있어 컴퓨터의 사용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1950년대에 數値계산용으로 자연과학의 연구에 처음 등장한 컴퓨터가 60년대에 들어와 자료처리 기능이 부가됨으로써 인간활동의 여러 분야, 특히 많은 계통의 학술연구에 폭발적인 수요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자연과학에 뒤이어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중요한 도구로 채택된 컴퓨터가 아직도 대부분의 인문분야에서는 그리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하겠다. 기본적으로 計量的인 성질을 가진 자료가 주로 다루어지고, 또 그 자료의 임의 조작 내지 채취가 가능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일찍부터 컴퓨터의 도입이 용이하였음에 반하여 인문분야에서의 컴퓨터 이용은 그 자료의 성격에 의해 제약을 받아 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인문분야 가운데서도 국사학 분야에서의 지금까지의 컴퓨터 이용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지금까지 필자가 알고 있는 컴퓨터 이용 事例는 宋俊浩교수와 E. Wagner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榜目연구와 朴星來교수가 災異기사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연구뿐이다. 이들은 모두 일단 수집된 제한된 범위의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만 컴퓨터를 이용한 것으로 제한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다.

장차 국사학의 연구에 있어서 컴퓨터의 이용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갈지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 컴퓨터의 범용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자료처리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국사학 연구자들에게 생겨나면 컴퓨터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시도될 것이고, 이에 따라 從來와 같이 제한된 用途가 아닌 보다 광범하고 유연한 이용방법이 개발될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1980년末부터 81년末까지 朴星來교수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 왔는데,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한 몇가지 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사학 분야에서 컴퓨터의 광범한 이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절대적인 관건이 漢文資料의 Data Base化에 있다는 점이었다. 즉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기초적인 자료들이 電算 처리가능한 상태로 入力되어 있어야만 다양한 이용방법의 시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업은 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많은 人力과 資金이 필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용방법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 緻密한 企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필자는 금년초부터 高麗史 世家篇의 일부를 시험적으로 入力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 작업의 기본적인 목표는 入力방법을 검토·개선하고 완성된 Data Base의 가능한 이용방법을 한두가지 例示함으로써 장차의 본격적인 작업을 企劃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두었다.

지금까지 入力된 부분은 卷 1의 대부분과 卷 2의 일부, 그리고 卷 3의 전부로 모두 약 2萬字

에 달한다. 이 자료는 필자가 작성한 符號化 對照表에 따라 符號化된 다음 啓明大 朴香在교수의 프로그래밍에 의해 同校 電算室에서 入力되었다. 臺本으로는 延世大 東方學研究所 纂의 高麗史(1961)를 사용하면서 國書刊行會 編의 高麗史(東京, 1973)를 補助로 하였다. 利用例의 出力結果는 符號化 對照表와 함께 別途로 配付될 것이다.

흡착모형으로 본 민족주의

—사회열역학적 역사연구 Ⅲ—

국민대 곽 현 태

80년도의 사회열역학적 역사의 틀」에 이어 81년도엔 「문화교류의 사회열역학적 해석」을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보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원 액체라 불리우는 흡착층의 여러 특색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여러 종족의 흥망성쇠를 설명하는 데 너무도 적절히 부합하는 것에 힘을 얻어 민족주의에 대해 사회열역학적인 모형 제시를 할까 한다.

모형접근법은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하나로,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기술해 주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변수들을 요인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몇개씩 큰 줄기로 묶고 그러한 것들 몇만을 다시 추려 현상을 쉽게 개괄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따라서 100% 완벽한 이해가 힘들고 상황 변화의 세세한 점까지 다 맞추라는 주문에도 응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략만을 종합했으되 옳은 인식을 끌어 내고 커다란 변화의 방향을 미리 짐작하게끔 하는 논리나 방법론이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사회과학에서는 커다란 수확으로 여기고 「처방적인 방법」이라 불러 주기도 한다.

간단한 공식이나 단순한 모형의 모형접근법이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과학과 기술의 도움으로 상당히 복잡해지고 정밀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점은 남아 있다. 즉 관념을 어떻게 정량화하느냐는 문제이다. 이것은 가치